

# 다도

## 차 예법



다도(사진제공 : AFLO)

다도 (‘차도’또는‘사도’) 라고 알려진 차 의 식 (‘차노유’) 은 손님과 동석하였을 때 갈아 만든 녹차를 준비하고 대접하는 의식을 말한다. 격식을 차린 다도에는 식사 (‘차카이세키’) 와 두 번의 차 대접 (‘고이차’와‘우수차’) 이 포함되며 손님이 미적, 지적 그리고 육체적 즐거움과 마음의 평화를 느낄 수 있도록 고안된 전체의식에 참여하게 되면 약 4시간 정도가 걸린다.

이를 위해 차를 제공하는 주인은 손님 앞에서 차를 대접하기 위한 조심스러운 절차에 숙달하는 것 뿐만 아니라 미술과 공예, 시 및 서예를 감상하는 법을 배우고, 꽃을 준비하고 요리하고 정원을 가꾸는 법을 배우고, 동시에 고

상함과 사심없음, 그리고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한 배려를 나타내는 데 수십년을 보낼 것이다.

주인의 이러한 모든 노력이 참가자의 즐거움에 초점을 맞춘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도가 손님을 위한 방종한 유희라고 말할 수는 없다. 차 의식은 빛, 물소리 및 석탄불의 따뜻함 (전원풍 차 오두막 배경에서는 모두가 강조된다.) 과 같은 간결한 자연의 깊은 아름다움과, 아름다운 공예품처럼 인간의 노력을 통해 분명히 나타나는 우주의 창조적인 힘 모두에 주의를 기울임으로 참가자를 겸허하게 만들도록 고안되었다.

다실에서의 대화는 이러한 주제들에 초점을

맞춘다. 손님은 가벼운 이야기나 잡담을 해서 안 되며 대화는 도구의 기원에 대한 토론과 자연현상의 아름다움에 대한 찬양으로 제한된다.

차 모임의 목적은 선불교의 목적처럼 이 순간을 사는 것이며 전체의식은 이 의식에 온전히 참여하고 잡념으로 인해 방해 받지 않기 위해 감각에 집중하도록 고안되었다.

사람들은 일본인이 집에서 정기적으로 여유를 즐기기 위해 보통 길이의 격식을 갖춘 다도를 수행하는지 궁금할 것이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 지금 일본에서 다실을 소유하는 사치를 누리거나 그러한 것을 즐기려는 사람이 많지는 않다. 차 의식을 즐기는 것은 불교의 승려들을 제외하고 항상 엘리트들의 특권이였다.

그러나 만약 일본에서 다도를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지 묻는다면 대답은 '그렇다.' 일 것이다. 남자와 여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포함하여 전국에 걸쳐 많은 일본인들이 백 개가 넘는 다양한 차 학파에 속해 있다. 이들은 연중 매주 한 번에 두 시간씩 그들의 스승을 찾아가 서너 명의 다른 학생들과 수업을 듣는다. 각 수업은 차를 준비하는 법과 손님의 역할들에 대해서 다룬다. 그리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동일한 수업을 듣기 위해 다음주에 다시 온다. 평생에 걸쳐 이런 수업을 듣는 사람들도 많다.

그 과정에서 차를 배우는 학생은 차를 만드는 방법뿐 아니라 석탄불을 완벽하게 만드는 방법, 도구를 다루고 분말 차를 준비하는 방법, 미술, 시, 도예, 칠기, 나무 공예 및 정원을 감상하는 방법, 계절마다 피는 들꽃을 구별하는 방법 등을 배운다. 그들은 '다타미' (짚으로 만든 매트) 방에서 처신하는 방법과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방법을 배운다.

스승은 책을 통해 배우는 것보다 모든 동작들을 머리가 아닌 몸으로 배우도록 가르친다. 전통적인 예술 - 차, 서예, 꽃꽂이 및 무예 - 은 모두 원래 교과서나 설명서 없이 가르쳤다. 강의의 목적이 주제를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수련받는 동안 자기만족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구와 계절에 따라 매주 수업 일과에 조금씩 변화를 준다. 학생들은 다도

가 끝나야 하는 연구의 과정이 아니라 삶 그 자체라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배운다. 학생들이 차 모임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있지만 그들이 배운 모든 것의 완성에 해당하는 정식으로 4시간 정도 소요되는 '차지(茶事)'에 참여하는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그것은 지식의 작은 축적, 단계적인 감각의 조정 그리고 일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작은 드라마를 기품 있게 다룰 수 있는, 작지만 만족스러운 발전과 같은 배움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다도의 힘은 자아실현의 달성에 있다.

## 다도의 역사와 '와비 - 차'의 개발

녹차는 중국에서 수입된 이래 12세기경부터 수도원과 귀족, 통치 군부 세력의 저택에서 음용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녹차를 약의 한 형태로서 마셨으며 수도원에서는 명상을 하는 동안 깨어있도록 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초기에 다도는 대부분 강당에서 값진 도구를 자랑하거나 참가자들이 다양한 차의 기원을 추측하는 시끄러운 파티 형태를 띠고 있었다. 14세기와 15세기에 선불교 대가들의 영향으로 손님 앞에서 차를 대접하는 절차는 영적인 정신을 고무하는 형태로 발전하였고 오늘날은 수백만 명의 학생들이 다양한 학파에서 다도를 수련한다.

특히 15세기 선불교의 대가인 무라타 주코(1423-1502)는 검소한 네 장 반 다타미 방에서 한 명의 귀족을 위한 차 의식을 수행하기 위해 모든 관습을 깼다. 의식을 수행한 차의 명인은 센노 리큐(1522-1591)였다. 리큐는 16세기 일본에서 가장 번영하던 무역항이었던 오사카 근처 사카이에 살던 부유한 상인의 아들이었다. 집안 배경 덕분에 부자들의 차 의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는 승려들이 일상생활의 신성함을 감상하기 위한 선불교의 가르침의 체험으로서 차 의식을 수행하는 방법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다. 주코의 본으로부터 힌트를 얻어 리큐는 다실과 준비하는 방법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다 제거하였고 불필요한 동작과 물건이 없는 차 의식을 발전시켰다.

**차 마시기** (사진제공 : AFLO)  
 찻잔을 받은 후 손님은 찻잔을 왼손 위에 놓고 오른손으로 받친다. 손님은 가볍게 인사를 해서 감사를 표하고 그릇의 "얼굴"을 바깥쪽으로 해서 마신다.

사치스러운 연회장에서 값 비싼 수입 용기를 사용하는 대신에 그는 초가집에서 간단한 철 주전자와 차를 담은 단순한 칠기 상자, 대나무로 만든 차 숟가락과 젓개, 그리고 차를 마시기 위한 일반 쌀 공기만을 사용하여 차를 만들었다.

리큐 방식의 다실에서 유일한 장식이 있다면 그것은 걸려있는 족자이거나 반침에 두는 꽃병이다. 장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참가자들은 세부점들에 더 많이 집중할 수 있으며 그들 주위의 그리고 그들 스스로의 단순한 아름다움에 깨어 있게 된다.

리큐의 차 의식의 핵심은 '와비'의 개념이다. '와비'는 문자적으로 "고독"을 의미한다. 선불교 철학은 이것의 긍정적인 부면을 강조하여 최고의 부는 고독과 가난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내부를 관찰하고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때 진정한 영적인 부를 발견하기 때문이다. 그의 이러한 차 양식을 '와비 - 차'라고 부른다.

리큐가 사망한 후 그의 손자와 이후에 세 명의 자손이 리큐의 차 양식을 계승하였다. 동시에 숭고한 지위로 단순한 '와비 - 차'보다 더 정교한 옷차림과 더 공을 들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한 특정한 '사무라이' 군주의 영향력 아래 '와비 - 차'의 변형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새로운 학파가 나타나기도 하였지만 '와비 - 차'의 정신은 모든 학파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일본의 근대화 (1868년에 시작)로 인해 군부 세력이 사라졌을 때 여성들은 차의 주요 수행자가 되었다. 차 의식은 올바른 몸가짐과 미에 대한 이해를 배양하기 위해 모든 젊은 여성이 배워야 하는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 동시에 정치, 경제 지도자들 및 미술품 수집가들은 차를 순수 미술과 공예품을 수집하고 즐기기 위한 매개체로 사용하였다.

오늘날 가장 큰 차 학파는 리큐의 자손중 두 명이 세운 우라센케와 오모테센케이다. 그들과 다른 주요 학파들의 영향으로 현재 전 세계에서 다도를 가르치고 있고 일본에서는 남녀 모두 삶에 대한 통찰에 도달하기 위한 가치 있는 방법으로서 다도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있다.



## 차 모임

공식적인 전 과정 차 의식 ('차지')에서 손님은 우선 나중에 차를 만드는데 사용될 뜨거운 물을 대접받는 대기실에 모인다. 그 다음 그들은 정원의 정자로 가서 주인이 환영할 때까지 기다린다. 주인은 안쪽 문에서 가볍게 인사하여 그들을 맞이한다. 그러면 손님은 돌로 만든 대야로 가서 물로 손과 입을 씻고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고안된 낮은 입구를 통하여 다실로 들어간다.

손님은 보통 선불교 승려의 서예작품인 반침에 걸려 있는 족자를 감상하고 '다타미' (짚 매트) 마루에 무릎을 꿇고 앉는다. 규정된 인사를 교환한 후에 주인은 석탄을 불에 넣고 배고픔을 잊을 정도의 계절 음식으로 만든 간단한 식사를 대접한다. 그 다음에는 촉촉한 단 음식이 나온다.

그런 다음 손님은 반침으로 돌아가서 차 대접을 위해 다시 부를 때까지 기다린다. 손님이 평온한 마음 상태로 들어가도록 하는 리드미컬한 동작으로 된 상징적인 정화의식으로 차 용기, 차 숟가락 및 찻잔을 닦는다.조용히 진한 차(고이차)가 준비된다. 손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해지는 정성스럽게 준비된 차는 조금씩 마신다. 하나의 그릇을 함께 사용하는 것은 차 모임에서 결합의 상징적 의미를 띤다. 그 다음 주인은 불에 석탄을 더 넣고, 일본 과자를 대접하며 더 농도가 묽고 알갱이가 적은 농도의 차(우스차)를 준비한다.이 마지막 단계 동안에 분위기는 가벼워지고 손님들은 일

상적인 대화를 나누게 된다. 그러나 대화는 여전히 도구와 분위기에 대한 감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참석한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행동하고, 모임을 위해 주어진 각각의 도구와 장식에 대해 질문하고, 손님들이 감상으로부터 방해 받는 일 없이 모임이 완벽하게 진행되기 위해 주인과 조화롭게 행동하는 것은 손님 대표의 의무이다.

## 차 받기와 차 마시기

차 모임에서 차를 마실 때에는 ‘다테마에’, 또는 ‘데마에’라고 하는 예절이 있는데, 모두 차를 대접하는 주인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는 것이다. 진한 차와 묽은 차를 마실 때에 각각 서로 다른 절차가 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차는 찻잔의 정면( 찻잔 문양이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쪽)이 손님에게 보이도록 놓는다. 손님은 찻잔의 아름다움을 칭송하고 차를 마실 때는 찻잔의 이 부분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고이차(진한 차)를 대접할 때는 손님들은 모두 같은 차 그릇으로 따름 차를 마신다. 첫째, 찻잔을 받으면 본인과 다음 사람 사이에 찻잔을 놓는다. 그리고 나서 주인에게 감사의 예를 표한다. 오른 손으로 찻잔을 잡고 왼손 바닥에 놓고 찻잔 머리를 살짝 들어 감사를 나타낸다. 찻잔 정면에 입을 대고 마셔 정면이 입술에서 떨어지는

것을 피 하기 위해 자신을 향한 찻잔을 두번 돌린다. 그리고 조금씩 차를 마신다. 차를 다 마시고 나면 자신의 앞쪽 다다미 위에 내려놓고 자신의 기모노 가슴쪽에 넣어둔 종이를 빼내어 찻잔에 입술이 닿은 부분을 닦고 다시 기모노에 종이를 집어 넣는다. 다음 손님에게 찻잔이 전해지기 전에 오른 손으로 찻잔을 들어 왼손 바닥에 놓고 찻잔의 정면을 원래 위치로 돌려놓는다. 찻잔이 다음 손님에게 전해지면 다시 한번 예를 표한다.

우스차(묽은 차)는 손님 각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제공된다. 묽은 차는 찻잔을 받았을 때 자신과 다음 손님 사이에 놓는다. 그리고 먼저 마시겠다는 양해의 표시로 예를 표한다. 찻잔 정면에 입을 대고 마시지 않도록 찻잔을 두번 돌린다. 무릎 앞에 찻잔을 놓고 주인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한다. 차를 다 마시고 나서는 손가락으로 마신 부분을 닦는다. 찻잔 정면이 손님을 향하도록 돌려 놓는다. 자신 앞쪽 다다미에 찻잔을 내려놓고 무릎위에 올려놓은 팔꿈치를 올려 찻잔을 들어 존경의 뜻을 전한다. 찻잔을 돌려 줄 때는 정면이 주인의 정면 쪽을 향하도록 돌려놓는다.

손님은 일본과자를 먹기 전에 일본과자가 올려진 접은 종이를 가져온다. 촉촉한 단 음식을 자르고 먹기 위해 특별한 케이크 꼬치를 사용하지만 말린 단 음식은 으로 먹는다.

차 도구(사진제공 : AFLO)

